

## 1. 포스트휴먼(posthuman)이란?

- 철학자이자 과학기술자인 보스트롬(N. Bostrom)이 주장한 개념으로 건강수명, 인지, 감정의 세 가지 주요 능력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이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, 이를 새로운 인류인 '포스트휴먼'으로 규정.
-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포스트휴먼 혹은 강화 인간(enhanced human)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을 트랜스 휴머니즘(trans humanism)이라고 부름.
- 인간 개선(human betterment) 혹은 인간 향상(human enhancement)을 꿈꾸는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은 과거의 우생학과 너무나도 닮아있다.

## 2. 캐리 벅(Carrie Buck)의 슬픈 이야기.

- 벅 대 벨 사건(Buck vs. Bell case 1927): 캐리 벅은 정신 박약(정신 지체)인 엠마 벅(Emma Buck)의 딸로,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백인 가정애 입양되었지만 엄마와 같이 정신 박약 판정을 받아 파양되어 수용소에서 생활함. 훗날 캐리 벅은 딸 비비안을 낳았지만 캐리 벅의 정신 박약을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하고 캐리 벅에게 강제불임 시술을 시행함.

## 3. 잘난 태생에 대한 학문

- 우생학(eugenics)은 그 역사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 의미의 우생학(초기 유전학을 기반으로 인간 개선을 목표로 하는)을 탄생시킨 사람은 다윈의 사촌은 프랜시스 골턴(Francis Galton, 1822-1911)

- 골턴은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인간의 재능과 특질이 유전된다고 믿었고 이를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정당화함으로써 인간 개선을 도모함.

- 골턴은 인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'우량종 육성(virculture)'이란 용어를 사용.

1883년 '선택적 출산(eu = good, well / gen = genesis, creation)'을 의미하는

'우생학(eugenics)'이라는 용어를 창안. '인종을 개선하는 과학'이라고 정의

- 우생학의 탄생 배경에는 19세기 중엽 영국의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.

1) 바이스만(August Weismann)의 생식질 연속설: 인간의 신체적 특질이 생식세포에 의해 부모에게서 자손에게로 유전된다는 개념. 인간의 생물학적 특질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믿음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줌.

2) 19세기 후반 영국사회의 전반적인 쇠퇴 분위기: 도시화로 인한 문제(빈곤, 범죄, 매춘 등)를 도덕적 문제로 연결시켜 인간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효율 달성의 급선무이며 이것이 곧 진보이며 문명화라고 판단했다. 이를 중간 계급의 지식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과학적 수단을 활용하여 타락한 존재를 제거하거나 우수한 존재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.

3) 사회 진보의 열망과 결합된 과학에 대한 맹신: 과학의 제도화와 전문화로 인한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한한 신뢰가 팽배한 분위기.

\* 인간은 스스로의 진화에 책임이 있다 = 인위적 개선이 가능

\* 골턴은 다양한 가설과 이론, 방법론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학문으로 정착시키려 노력.

\* 골턴의 우생학은 단순한 과학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사회적 실천을 수반했던 연구 분야.

\* 우생학은 당시 30개 나라 이상에서 진행, 각 나라마다 프로그램의 성격, 사회적 실천의 내용이 달랐다.

미국, 독일의 유전론적 우생학(negative: 나쁜 형질의 유전을 최소화) - 제거, 통제  
프랑스, 브라질의 환경론적 우생학(positive: 좋은 형질의 유전을 최대화) - 개선, 향상

#### 4. 인종에도 등급이 있다?

- 미국의 이민제한법(1924) = 계급 문제 + 인종 문제
-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쿼터에 의해 미국으로의 이주가 제한받게 됨.
- ex. 비네(A. Binet) 검사나 고다드(Henry H. Goddard)의 지능검사(IQ test)
- 혼인법
- 단종법(불임법) ex. 벽 대 벨 사건

#### 5. 나치 커넥션

- 우생학 = 인종위생 혹은 인공대청소
- 독일의 전쟁 패배(1차 세계 대전)와 경제 대공황의 위기속에서 등장한 나치 정권
- 우생학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. 단종법(=히틀러 처형)
- 이후 뉘른베르그 법(1935)이 제정되고 홀로코스트로 이어짐.
- 우생학의 몰락: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생학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
  - 1) 우생학의 과학적 취약성이 점차 밝혀짐
  - 2)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산.
  - 3) 가장 결정적인 쇠퇴의 원인은 나치의 홀로코스트,
 이후, 우생학은 과학이 아닌 사회적 이념의 표출로 인식.

#### 6. 우생학, 비판과 오해?

- 우생학은 유전주의(=유전자결정론)를 전제로 하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소지가 크다. cf) 수저계급론
- 보수 우익 세력만의 이데올로기도 아니었다. ex) 중국의 한 자녀 정책, 일본의 국민우생법, 한국의 모자보건법 등

※ 우생학은 일부 광적인 정치가나 학자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반, 서구에 보편적으로 수용된 생물학의 응용과학이자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에 주목.

#### 7. 우생학,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

- \* 21세기판 우생학의 등장?
- 새로운 유전학의 정당성은 의학적 차원에서 생명공학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적용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국가나 사회에 의한 전체적이며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ex) 안젤리나 효과(The Angelina Effect)<sup>1)</sup>

1) 안젤리나 졸리가 BRCA1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을 우려, 예방적 절제술을 시행. 이후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일종의 신드롬이 됨.

\* 새로운 유전학 역시 유전적 고정성에 집착한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지만, 유전자가 인간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적 코드가 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우생학을 꿈꾸는 지도 모른다.

# 우생학은 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'전체'의 이름으로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.

# 사회와 정책이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했을 때 가져올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는 사례

# 과학자들이 권력의 정치적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함. (과학과 정치는 늘 '상보적'이다.)

끝.